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도시 광주 도약 선언

광주관광재단, '2022 광주관광 컨퍼런스 & 어워드' 성료

유공자 시상·교류의 밤 등 관광인 격려…ESG가치 실천도

코로나 상황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관광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광주관광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광주관광재단은 지난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민·관·산·학계가 참여하는 '2022 광주관광컨퍼런스 & 어워드'를 개최, 광주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이날 행사는 광주관광재단이 설립 2년을 맞아 광주관광산업발전의 해법을 찾고, 지역 관광을 위해 노력해온 관광학자, 기업, 여행사 등 관광공동체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3부로 구성된 행사에서는 먼저 관광 분야 민·관·산·학 거버넌스인 광주관광발전포럼 컨퍼런스를 통해 중장기 광주 관광산업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2부에서는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 지역 관광발전에 기여한 협력 파트너들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고 관광발전위원, 문화관광해설사 등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 관광트렌드와 지속가능한 광주관광'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는 박상원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전략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이형주 VM컨설팅 대표가 '유니크베뉴를 활용한 관광도시브랜드 창출'을, 안지영 인문공방 대표가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 특화전략'을,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책임연구위원이 '빅데이터로 본 광주관광'에 대해 발제하고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광주관광 전략을 제안했다.

광주관광 어워드 시상식에서는 광주관광발전에 기여한 이애심 문화관광해설사 등 12명이 각각 광주시장상과 광주시의회 의장상,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상을 받았다.

지역관광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관광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협업의 기회를 찾으며 친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 재인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광주 무등산의 지오파트너 제품인 무돌막걸리를 건배주로 나누며 화합을 다졌다.

또한 행사장 로비에는 광주관광재단이 지난 2년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수기념상품인 '오매나 컬렉션'과 재단이 지원 육성하고 있는 광주관광스타트업을 소개하는 '광주×관광×기업' 전시도 선보여 관심을 끌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유공 관광인 격려를 통해 "광주는 남다른 스토리와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다"면서 "우리만의 자원을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고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만들어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광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익사이팅 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강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는 "2023년은 광주비엔날레와 20회 충장축제, 세계김치축제 30주년 등 굵직한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우리 광주관광이 도약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돈독해진 광주 관광인들과 손잡고 광주관광산업의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 광주관광발전컨퍼런스&어워즈'는 지속가능한 ESG 광주관광을 실천하기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 없는 제로 웨이스트' 행사로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명진 기자

전남 대표 3개 국악단, 남도예술 정수 선보인다

오늘 전남도립국악단·남도국악원·진도군립민속예술단 '지호락'

전남을 대표하는 3개 국악 단체가 모여 송년 합동공연을 펼친다.

전남도립국악단과 국립남도국악원,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은 14일 오후 7시30분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2022년 송년합동공연 '지호락'을 개최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합동공연은 '여기, 우리 몸에 배어 흐르는 오늘의 남도국악축제'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이날 공연에서는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이 진도민속 예술의 정수, 씻김굿 가락을 가무악으로 새롭게 만든 가무악 씻김 '천궁'을 선보이며, 국립남도국악원은 궁중 무용의 정수 '처용무'와 판소리 합창 '사천가'를 무대에 올린다.

아울러 전남도립국악단은 궁중 정재 '처용무', 창작 무용극 '기억의 자살, 희망의 부활' 무대를 준비했다. 창작 실내악과 무용극의 놀라운 반전과 촘촘한 스펙트럼으로 관객들에게 전통국악의 진수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을 주관한 류형선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은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지호락(知好樂)이란 주제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인들의 삶을 압축, 측량하기에 적당했다"며 "한 해의 끝을 앞두고 전남 전통예인들이 빚어내는 '지호락'의 정수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년합동공연 '지호락' 공연 모습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한편, 이번 송년합동공연을 관람하는 모든 관객에게는 음원이 수록된 '2023 판소리 달력'을 증정하며, 오는 24일에는 국악캐럴콘서트 '마굿간으로 가세' 공연이 예정돼 있다. /최명진 기자

화장한 흔적이 미치지는 못해도 청춘의 기색이니

장희구 박사 (482)

漢詩 향기품은 번안시조

七月見梨花(칠월견리화)
태촌 고상안

가을에 꽃피니 열매 없어도 슬프지 않아
화장 끼 미치지 못해도 청춘의 기색이니
여보소 과부 할머니 재혼할 때와 같도다.

秋日開花兩三枝　雖花無子亦堪悲
추일개화량삼지　수화무자역감비
殘粧不及靑春色　恰似孀婆再嫁時
잔장불급청춘색　흡사상파재가시

그만 제철을 잃은 배꽃이 늦은 시기에 피었다. 음력 7월이면 가을 기운을 보낸 9월이다. 눈이 하얗게 오는 듯이 제 자랑을 하고서 언제 열매를 맺고 과일이 익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때를 놓친 배꽃이다. 사람도 자식을 낳아 기를 나이가 40대 이전이다. 이후엔 음양의 이치가 맞지 않아 잉태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배꽃이 가을에 두세 가지에서 꽃이 피니, 꽃에 열매는 없어도 차마 슬픔을 감내하고 있구나'라고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화장한 흔적이 미치지는 못해도 청춘의 기색이니'(七月見梨花)로 제목을 붙여 본 칠언절구다.

작가는 태촌(泰村) 고상안(高尙顔:1553-1623)으로 조선 중기 때의 학자다. 1573년(선조 6) 진사가 되고, 1576년(선조 9) 문과에 올라 상주 함창 현감, 풍기 군수 등을 지냈던 인물이다.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 때 향리인 상주 함창에서 의병대장으로 추대돼 큰 공을 세웠던 인물로 알려진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배꽃이 가을에 두세 가지에서 꽃이 피니 / 꽃에 열매는 없어도 차마 슬픔을 감내하는구나 // 화장한 흔적이 미치지는 못해도 청춘의 기색이니 / 흡사 과부 할머니가 재혼할 때와 같구나'라는 시상이다.

위 시제는 '칠월에 배꽃을 보고'로 번역된다. 배꽃은 봄에 피어 여름에 열매가 자랐다가 가을 수확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그럼에도 한창 열매가 익을 늦여름인 음력 7월에 배꽃이 피었던 모양이다. 제철을 잃은 배꽃의 정경이다. '늦장미를 보며'라는 시제가 있듯이, '늦게 핀 배꽃을 보며'라고 시제를 붙인다면 너무 어색하지는 않을지 모르겠다.

시인은 배꽃이 봄에 피어야 제대로 된 활짝 핀 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 몇 가지만 꽃이 피었다는 시상 주머니를 만지고 있다. 가을이 됐으니 두세 가지에 꽃이 피니, 꽃에 열매가 없어도 슬픔을 감내한다 했다. 시기를 놓쳐서 핀 꽃이 애잔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는 시심을 울어냈다.

화자는 제때에 피지 못한 배꽃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은 뻔한 처지였을 것이니 청춘을 잃어 화장을 하지 못한 처지를 생각해 냈을 것으로 보인다. 화장기 미치지 못했었어도 아직 청춘의 기색이니, 흡사 과부 할머니 재혼할 때 같다고 했다. 과부 할머니가 재혼해 보았자 자식을 낳지도 못할 청춘이 다 지난 때임을 생각해 냈던 시적인 착상이 한껏 멋을 부리고 있어 보인다.

※한자와 어구

秋日: 가을 날. 開花: (배꽃이) 꽃이 피다. 兩三枝: 두세 가지. 雖: 비록. 花無子: 꽃에 열매가 없다. 꽃에 씨가 없다. 亦堪悲: 또한 슬픔을 감내하다. // 殘粧: 화장한 흔적. 不及: 미치지 못하다. 靑春色: 청춘의 빛. 恰似: 흡사. 孀婆: 과부 할머니. 再嫁時: 재혼할 때

〈시조시인·(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광주비엔날레 전시해설사 모집 오는 20일까지 접수

(재)광주비엔날레가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서 활동할 전시해설사를 모집한다.

재단은 내년 4월7일부터 7월9일까지 94일간 개최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에서 관람객들의 전시 이해를 도울 해설사를 오는 20일까지 공모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과한 최종 선발자는 다음달 4일부터 3월 말까지 총 83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1부 기초 교육은 광주비엔날레 소개 및 전시해설사 기본역량을 위한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2부 심화 교육에서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작품 및 작가 설명, 외부 전시장 답사 등 실무 교육이 이뤄진다. 총 25회의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전시해설사 활동 완료자에게는 활동증명서가 발급된다. 행사기간 활동 우수자에게는 공로상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서류 심사 결과는 오는 23일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면접 심사는 27일이며 최종 합격자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